■ 민족문화연구 제93호(2021.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05-232.
http://doi.org/10.17948/kcs.2021..93.205

洪自誠의 정체와 『菜根譚』의 주제의식
—徽州 商人과 연관하여—

안대회(安大會)*

목 차

1. 머리말
2. 홍자성과 휘주 상인 가문
3. 『채근담』의 주제적 특징
4. 『채근담』 前集의 處世와 涉世
5. 『채근담』 後集의 出世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晩明 시기 淸言 작가 洪自誠의 출신지와 스승을 새롭게 추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菜根譚』의 주제를 새롭게 검토하였다. 오랫동안 정설처럼 굳어진 泗川省 成都 출신으로서 楊愼의 제자라는 설을 수정하여 安徽省 徽州의 歙縣에 본적을 둔 부유한 鹽商 가문 출신이며, 같은 지역 염상 가문 출신의 유명한 문인인 汪道崑의 제자로 추정하였다. 홍자성이 明淸 시대에 가장 큰 상인집단이었던 徽州 商人의 의식을 지닌 지식인이었고, 해당 지역의 정신적 지주였던 왕도곤의 학맥과 인맥, 지역색의 영향권에서 활동하였음을 밝혔다.

『채근담』 초간본의 前集과 後集을 분석하여 왕성한 상업문화를 꽃피운 휘주 상인의

*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경영문화와 지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였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경영문화와 인간관계, 리더쉽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면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주요한 청언집과 대비하여 『채근담』에는 현실에서 도피하며 은둔하는 청언 일반의 사유가 약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영욕과 득실, 시시비비와 이해관계로 뒤엉킨 현실을 세상의 본질로 이해하고,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헤치고 살아가는 자세를 인생의 본모습으로 보는 적극적 처세관을 살펴보았다.

특히 『채근담』에서 가혹한 현실 환경, 대인관계, 인정세태를 부각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세상을 견디고 헤쳐나가는 방법을 제시한 점은 당대 상인의 현실을 은연중 반영하였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 밝힌 내용은 홍자성과 『채근담』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洪自誠, 『菜根譚』, 晩明淸言, 新都, 汪道崑, 楊愼, 徽州商人, 鹽商.

1. 머리말

『菜根譚』은 洪自誠이 지은 淸言集이다. 1610년 전후 몇 년 사이에 지어졌고, 20세기 들어와 폭발적 인기를 누리며 동양의 아포리즘을 대표하는 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채근담』은 처세훈과 인생론을 말하는 잠언의 경계를 넘어서 자기계발서나 경영서로도 환영받고 있다.

대중적 양서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연구되어 『채근담』은 큰 논란이 없을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큰 논란거리로는 저자 洪自誠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안건이 있다. 저자에 관해서는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홍자성이 부유한 安徽省 徽州 商人 가문 출신으로서 당대 문단의 거장인 汪道昆의 제자일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왕도곤은 휘주의 대표적 상인 가문 출신으로 휘주 상인을 대변한 작가였다.

『채근담』을 휘주 상인의 처세관과 인생론, 경영법 및 상업윤리가 스며든 청언집으로 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탐색하였다. 晩明 淸言의 보편적 주제와는 조금 다른 『채근담』만의 독특한 처세관과 고유의 주제가 있고, 여기에는 그의 생활환경이 은연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도회지 생활을 긍정하고 현실과 담을 쌓고 지내는 出世나 逃世보다는 處世와 涉世의 태도가 강하

게 나타나며, 험난한 세상을 헤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점이 『채근담』에 독특한 주제적 특징이다.

그와 같은 특징에는 휘주 상인 가문 출신으로서 정체성과 汪道昆의 인맥과 지연, 학맥의 영향이 미쳤을 수 있다. 이 논문의 추론과 분석이 『채근담』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홍자성과 휘주 상인 가문

『채근담』의 저자는 洪自誠 또는 洪應明이다. 대체로 初刊本 계통에서는 홍자성으로 쓰고, 청간본 계통에서는 홍응명으로 쓴다. 홍자성은 초간본 계통이 주로 읽힌 한국과 일본에서, 홍응명은 淸刊本 계통이 주로 읽힌 중국에서 사용된다. 字를 이름처럼 쓰기도 하고, 또 한국과 일본에서는 홍자성으로 굳어졌으므로 본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홍자성으로 쓴다.

홍자성의 인적 사항을 『四庫全書總目提要』「小說家存目」에 등장하는 그의 저술 『仙佛奇蹤』 4권(內府藏本)에서는 "明 洪應明 撰. 應明의 자는 自誠이고, 호는 還初道人이다. 그 里貫은 미상이다. 이 책은 萬曆 壬寅年(1602)에 완성되었다."[1]라고 밝혔다. 이 간단한 내용이 홍자성의 인적 사항과 관련한 가장 권위 있고 상세한 정보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를 쓸 때는 그에 관해 밝힐 근거를 찾지 못했음을 말한다. 그밖에 어느 지역 사람이고, 어떤 집안 출신이며, 어떤 인생 경력을 살았는지 살펴볼 만한 기록이 없다. 아주 간단한 한두 가지 정보가 『채근담』과 『선불기종』의 題詞와 서문에 겨우 적혀 있는 정도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홍자성과 관련된 주변 인물을 통해서 추정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채근담』 初刊本에는 題詞를 쓴 三峰主人 于孔兼과 교열한 사람 覺迷居士 汪乾初가 등장한다.[2] 그중 왕건초는 알려진 정보가 전혀 없는데

---

1) 『四庫全書總目提要』「小說家存目」. "明洪應明撰. 應明字自誠, 號還初道人, 其里貫未詳, 是編成於萬曆壬寅."
2) 『채근담』은 만력 연간에 간행된 초간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 책은 上海圖書館에 소장돼 있고, 『續修四庫全書』 제1133책에 영인되어 실린 목판본이다. 필자는 淸刊本 『채근담』을 홍자성이 편찬하지 않은 일종의 僞書로 본다. 安大會, 「한국의 『菜根譚』 수용 과정과 번역」, 『한국문화』 95,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229-253면.

뒤에 다시 언급한다.

于孔兼(1548-약1612)은 만력 연간의 저명한 인물이다. 자는 元時, 호는 景素, 또는 三峰主人이다. 江蘇省 鎭江府 金壇 사람으로 1580년 진사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하였다. 禮部郎中으로 재직하면서 皇太子 선정의 문제점을 상소하는 등 강직한 관료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만력제의 미움을 사서 좌천되자 관직을 버렸다. 고향에 20년 동안 칩거하면서 顧憲成 등과 함께 東林書院에서 제자를 가르쳤다. 東林黨의 주요한 일원으로 부패한 권력자에 대항한 양심적 관료를 대표하며 존경을 받았다. 홍자성을 友人이라고 하였고 조금 나이를 낮춰보는 듯한 口氣의 題詞 내용[3]을 근거로 홍자성이 1548년 이후 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한편, 홍자성은 『채근담』 외에 『仙佛奇蹤』이란 4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道士와 高僧의 행적 및 명언을 인물 판화와 함께 기록한 이 책은 1602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日本 內閣文庫에 소장된 『선불기종』의 「長生詮」 1권에는 「長生詮小引」을 앞에 실었는데 "만력 임인년(1602) 12월 그믐에 환초도인 홍응명은 秦淮의 작은 집에서 쓴다"[4]라고 밝혔다. 여기서 秦淮는 南京이다. 그가 남경 진회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음을 밝혀준다.

이 책에는 두 명의 명사가 서문을 썼다. 「仙引」에는 了凡道人 袁黃(1533-1606)이고, 「佛引」에는 眞實居士 馮夢禎이다. 원황은 호가 了凡이고 浙江省 嘉興府 嘉善縣 사람이다. 만력 연간에 진사에 급제하여 兵部職方司主事가 되어 壬辰倭亂 초기에 조선에 파병돼 나왔다. 贊畫 직책을 맡아 經略 宋應昌의 핵심 참모로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평양을 수복한 뒤 왜군에 패하자 提督 李如松과 전술상 갈등을 겪고 이여송의 탄핵을 받아 1593년 3월에 면직돼 귀향하였다.[5]

---

3) 于孔兼, 「題詞」(洪自誠 著,『菜根譚』), 萬曆 刊本, 『續修四庫全書』 제1133책. "適有友人洪自誠者, 持『菜根譚』示予, 且丐予序."

4) 洪自誠, 『長生詮』 권1, 「長生詮小引」. "萬曆壬寅季冬朔, 還初道人洪應明, 書於秦淮小邸." 각주 6의 『菜根譚』 「解說」에서 재인용함.

5) 宋應昌의 『經略復國要編』에는 원황에게 보내는 각종 문서가 실려있어 원황이 임진왜란 초기에 중요한 전략가의 임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宋應昌 著, 구범진 외 옮김, 『명나라의 임진전쟁』 1·2권,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불교를 매우 좋아한 원황은 스님처럼 처신하면서 조선 사대부가 주자학에만 몰두한다고 대놓고 비꼬았다. 牛溪 成渾에게 편지를 보내 불교와 양명학을 배우라고 권유하여 당시 조선 사대부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조선 사대부에게는 나쁜 인상을 남긴 인물이었으나 원황은 『了凡四訓』이란 善書를 저술하여 중국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馮夢禎(1548-1605)의 자는 開之, 호는 眞實居士로 浙江省 嘉興縣 사람이다. 1577년에 진사에 장원급제하였고, 國子監祭酒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권력자 張居正에게 미움을 사 탄핵당한 뒤 관직을 그만두고 杭州로 이주하여 시문을 지으며 살았다. 1616년에 간행된 문집 『快雪堂集』이 있다.

홍자성과 관계가 있는 세 사람은 모두 과거 급제자에 강소성, 절강성 출신의 유능한 인재로 조정을 장악한 환관 세력과 권력자에게 항거하다가 서둘러 은퇴한 공통점이 있다. 우공겸은 理學에 밝은 유학자였고, 원황과 풍몽정은 불교와 도교에도 해박하고 깊이 심취한 유학자였다. 『仙佛奇蹤』의 소개글을 원황과 풍몽정에게 부탁한 이유가 있듯이, 『채근담』의 서문을 우공겸에게 받은 이유가 있다. 권력에 굴하지 않은 처신과 이학에 밝은 유학자라는 점이다. 원황이 1533년생으로 선배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똑같이 1548년생이다. 그중 둘은 1606년 이전에 사망하였다.

앞서 인용한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밝히지 못했기에 홍자성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그동안 가설과 추정이 몇 가지 등장하였다. 원황이 「仙引」에서 "홍자성 씨는 新都의 제자이다."[6]라고 밝힌 글이 가장 중요한 추정의 근거였다. 今井宇三郎은 「채근담 해설」에서 이 말을 泗川省 新都縣 출신이라는 말로 이해하였다. 사천성의 成都를 新都縣으로 불렀다는 역사지리적 근거로 成都 출신일 것으로 추정하였다.[7] 이후 그 추정이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라는 말에 이끌려 成都 출신으로서 저명한 博物學者인 楊愼(1488-1559)의 제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후 홍자성을 양신의 제자로 인정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8] 성도 출신의 대

6) 袁黃, 「仙引」(洪自誠 著, 『仙佛奇踪』, 安徽人民出版社, 2013), 3면. "洪生自誠氏, 新都弟子也."
7) 今井宇三郎 譯注, 『菜根譚』, 「解說」, 日本 岩波文庫, 1975.(2016년 66쇄), 367-390면.

표적 학자라서 그 古號인 新都로 부르는 것은 그럴듯해 보였다. 다만 1548년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홍자성이 양신의 제자가 되기에는 연대상 맞지 않는 난점이 있었다.

그밖에도 홍자성의 인적 사항을 논한 몇 가지 주장이 나왔으나 굳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중 거의 무시된 주장 가운데 하나가 呂宗力이 「菜根譚 作者의 本籍과 板本의 源流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에서 주장한 설이다. 신도가 安徽省 徽州 일대의 古號이고, 홍자성은 안휘성 휘주의 歙縣에 本籍을 두고 江蘇省 淮安縣에 거주한 부유한 휘주 鹽商 출신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였다. 핵심적인 근거로 乾隆 연간에 간행된 『歙西王充東源洪氏宗譜』를 제시하였다. 이 족보에는 洪應明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부친이 1536년 전후에 출생하여 홍자성은 1556년 이후에 출생하였으리라 조심스럽게 추정하였다. 이 집안은 江蘇省 淮安縣에 거주하며 부유한 鹽商으로 활동하였다고 밝혔다.[9] 그의 추정은 여기까지다.

이 설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呂宗力이 내세운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홍자성이 徽州 歙縣에 본적을 둔 부유한 염상 가문 출신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인용한 "홍자성 씨는 新都의 제자이다."라는 원황의 말로 돌아가 본다. 이 말은 신도 지역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도의 제자'라는 말이다. 그 점에서 今井宇三郎과 呂宗力이 신도 출신으로 해석한 것은 오류이다. '신도의 제자'라면 누구의 제자인가? 다름 아닌 휘주 흡현 출신인 汪道昆(1525-1593)의 제자이다. 왕도곤은 옛 지역명인 新都 또는 新安이란 별칭으로 불렸다. 당시 문단에는 王世貞(1526-1590)과 왕도곤이란 두 명의 맹주가 있었다. 왕도곤이 비록 '後七子'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을 '文壇兩司馬'라 竝稱하였다.[10] 顧起元이 쓴 馮夢禎의 『쾌설당집』 서문에서 "당시에 천하에

8) 中村璋八, 石川力山, 「解說」, 『菜根譚』, 日本 講談社 學術文庫, 1986, 419-435면; 王同策, 「菜根譚是什么書? - 代序」, 『菜根譚注釋』. 浙江古籍出版社, 1996, 1-11면.

9) 呂宗力 著, 中村璋八 譯, 「菜根譚の作者の本籍と版本の源流についての考察」, 『駒澤大學外國語論集』 31, 1990 , 195-202면.

서 古文詞를 짓는다고 하는 이들은 누구나 문단의 맹주로 琅琊와 新都를 떠받들었다. 붓을 잡은 이들 가운데 두 분을 배제하고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11]라고 하였다. 여기서 낭야는 왕세정, 신도는 왕도곤이다. 흔히 왕세정을 출신 지역인 琅琊 또는 太倉으로 불렀고, 왕도곤을 新都 또는 新安으로 불렀다. 또 비슷한 시기의 저술 胡應麟의 『詩藪』, 王世貞의 『藝苑巵言』 등에 매우 흔하게 쓰인다. 하나의 사례로 『藝苑巵言』에는 "歷下極深, 新安見裁."라는 말이 있는데 歷下는 山東省 濟南으로 곧 李攀龍을 가리키고, 新安은 新都의 이칭으로 곧 汪道昆을 가리킨다. 이렇듯이 당시에 널리 사용한 호칭법이었다. 그동안 新都를 成都로 오독하고 楊愼으로 잘못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안휘성 휘주이고, 왕도곤의 별칭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홍자성은 왕도곤의 제자이다. 나이차도 스승과 제자뻘이다.

홍자성을 왕도곤의 제자로 보는 필자의 주장은 呂宗力의 설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왕도곤이란 스승의 존재이다. 왕도곤은 휘주 상인 집안에서 출생하여 병부시랑을 지낸 고위 관료였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부유한 鹽商이었다. 염상으로 부를 쌓은 뒤 儒者로 입신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상인에서 유자, 관료로 성장하는 휘주 상인 가문의 전형적 성장 과정의 하나를 상징한다. 탄핵을 받아 은퇴한 이후로는 고향에 머물며 주변 문인들과 교유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명사로 군림하였다.

왕도곤의 제자 가운데는 상인 가문 출신의 제자가 적지 않았다. 그중 휘주 지방문인 謝陛(1547-1615)를 꼽을 수 있다. 휘주 상인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과거를 여러 차례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휘주 지방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12] 謝陛의 경우처럼 홍자성도 왕도곤의 제자로서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추정된다.

왕도곤의 문집 『太函集』에는 235편의 전기 가운데 112편이 상인의 전기일 정도로 휘주 상인의 삶을 대변하였는데 사대부 문인으로서 유례를 찾기가 힘

10) 胡益民, 「點校前言」(汪道昆, 『太函集』, 제1책), 黃山書社, 2004, 1-24면.
11) 顧起元, 「快雪堂集序」(馮夢禎 著, 『快雪堂集』), 1616년 간본. "于時海內名能詩賦古文詞者, 罔不以壇坫而奉琅琊與新都. 盖觚翰之業, 未有能外二氏, 自爲言者."
12) 陳怡安, 「晚明文人的名聲的經營——以歙縣謝陛的交遊爲例」, 『新北大史學』 第19期. 2016, 1-24면.

들다. 그의 전기에는 汪氏, 程氏, 吳氏 등 휘주의 유력한 상인 가문이 등장하는데 홍씨도 그 안에 들어 있다. 「明故處士洪君配吳氏合葬墓誌銘」에서 송나라 때 休寧 黃石에서 흡현의 洪源으로 이주한 홍씨의 후손 洪什이 鹽筴으로 각지에서 장사하는 행적을 서술하였다.[13] 왕도곤은 이 지역 인재들이 큰 이익을 얻는 상인이 되거나 아니면 큰 명예를 얻은 儒者가 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행적을 흥미롭게 기록하였다. 明淸 시대에 가장 큰 상인 세력을 형성하였던 휘주 출신 儒商의 인생 행적과 시각을 곳곳에서 피력하였다.[14]

다만 아쉽게도 『태함집』에서 홍자성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관련한 인물의 문집에서도 홍자성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아니었거나 학문보다는 상업에 종사했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명말부터 청대까지의 문헌에서 홍자성의 인적사항과 행적을 조금이라도 언급한 기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태함집』 등 이 지역 사람의 저작에 그의 행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여 바로 그는 왕도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홍자성의 현존하는 저서 『채근담』과 『선불기종』에 서문을 남긴 이들조차 그들의 문집에 홍자성과 관련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당시에 홍자성은 존재감이 없는 학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왕도곤의 제자이므로 홍자성은 휘주 흡현에 본적을 둔 부유한 염상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당대의 명사로서 進士 出身인 우공겸, 원황, 풍몽정과 친분을 맺고 서문을 받게 된 인맥과 학맥, 지역색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풍몽정은 왕세정과 왕도곤의 제자로서 그의 『쾌설당집』에는 왕도곤의 제문을 비롯하여 원황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壽序가 실려있어 그들 사이의 친분을 증명하고 있다. 『채근담』 초간본을 교열한 汪乾初도 동향 친구로 왕도곤과 가까운 집안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홍자

13) 汪道昆, 『太函集』, 권46, 위의 책, 2권, 971-974면.
14) 臼井佐知子, 「중국상인의 경영형태와 상업윤리 : 휘주상인을 중심으로」, 『史林』, 수선사학회, 2009, 229-260면; 이화승, 「明代 汪道昆의 『太函集』 분석—商人을 대변한 병부시랑—」, 『명청사연구』 47, 명청사학회, 2017, 109-145면; 신정수, 「汪道昆의 상인 전기에 나타난 휘상의 협객적 면모」, 『민족문화연구』 7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129-155면.

성이 왕도곤의 제자라고 한다면 저들 인맥 관계가 저절로 해명된다. 당시 휘주 상업계와 문단에서 왕도곤의 명망과 세력이 대단히 컸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홍자성은 왕도곤의 학맥과 인맥, 지역색의 영향권에 속한 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홍자성의 인적사항과 생애를 파악할 자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조건에서 겨우 남은 한두 가지 단서를 통해 위와 같이 부유한 安徽省 徽州 商人 가문 출신일 가능성과 당대 문단의 거장인 汪道昆의 제자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앞으로 더 분명한 자료의 발굴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풍몽정은 「佛引」에서 "홍자성 씨는 젊어서는 紛華함을 사모하였으나 나이 들어서는 禪의 적막함에 깃들어 살았다."[15]라고 밝혔다. 홍자성이 젊어서 紛華함을 사모하였다는 의미는 함축적이라 정확히 어떤 실제 행적을 지칭하는지 알기 힘들다. 『채근담』에는 紛華라는 말이 세 번 쓰인다. 용례로 보아 세력과 이익을 갖고 있으면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행적을 가리킨다.[16] 젊은 시절에는 집안이 부유하였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추정할 만하다. 풍몽정의 판단으로는 홍자성이 부유한 염상 가문 출신으로서 젊은 시절에는 유자로서 관료로 나가거나 상인으로서 거부가 되려던 목표 사이에서 큰 뜻을 품고 노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불교와 도교에 심취했음을 간명하게 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상인으로서는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알 수 없다.

또 우공겸은 題詞에서 "그가 얼마나 세상 풍파에 시달렸고, 험난한 역경을 두루 맛보았는지 얼추 상상할 수 있다."[17]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로 추정하건

15) 馮夢禎, 「佛引」(洪自誠 著, 『仙佛奇踪』, 위의 책), 4면. "洪生自誠氏, 幽慕紛華, 晩棲禪寂."
16) 전집 4칙, "勢利紛華, 不近者爲潔, 近之而不染者尤潔; 智械機巧, 不知者爲高, 知之而不用者爲尤高." 전집 37칙, "寧守渾噩而黜聰明, 留些正氣還天地; 寧謝紛華而甘澹泊, 遺個清名在乾坤." 후집 54칙, "自老視少, 可以消奔馳角逐之心; 自瘁視榮, 可以絶紛華靡麗之念."
17) 于孔兼, 「題詞」, 앞의 글. "其顚頓風波, 備嘗險阻, 可想矣. 洪子曰: '天勞我以形, 吾逸吾心以補之; 天阨我以遇, 吾高吾道以通之.' 其所自警自力者, 又可思矣."

대, 풍파를 겪고 성공과 실패를 두루 겪었다고 짐작한다. 前集 91칙에서 홍자성은 "하늘이 내게 복을 아주 적게 준다면 나는 나의 덕을 두텁게 길러 복을 맞아들이리라. 하늘이 나의 몸을 힘들게 한다면 나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 몸을 도우리라. 하늘이 내게 액운을 보내준다면 나는 내가 갈 길을 시원하게 뚫어 통하게 하리라. 그렇게 한다면 하늘도 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18]라며 어떤 곤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힘껏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 淸言은 그가 실제로 겪은 고난과 우환을 밝힌 듯하다. 우공겸이 제사에서 이 대목 일부를 인용하고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스스로 노력한 정성을 이 말에서 또 얼추 상상할 수 있다."[19]라고 평하였다.

이처럼 『채근담』 안에는 홍자성이 겪은 인생 경험을 녹여서 풀어낸 부분이 적지 않다. 인생 경험은 자신만의 외로운 경험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 몸담고 있던 휘주 상인과 지식인 사회가 공유한 경험과 사회적 환경으로 넓혀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채근담』은 명청 시대에 가장 왕성한 상업문화를 꽃피운 휘주 상인의 사업 경영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였고, 상인 사회의 경영문화와 인간관계, 리더쉽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채근담』의 주제적 특징

『채근담』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 처세술과 인생론을 제시한 책이다. 당시 가장 왕성한 상업문화를 꽃피운 휘주의 사업 경영과 사회 분위기에서 나온 책이라면, 『채근담』의 청언은 일반 관료 문인이 지은 청언집과 어떤 차이를 드러낼까? 홍자성이 부유한 휘주 상인 가문 출신이고, 휘주 상인 사회와 지식인 사회의 구성원이었다고 해도 그 배경과 환경이 淸言에 직접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청언의 고유한 주제와 발상에 그런 요소가 틈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배경과 환경을 역으로 숨길 수도 있다. 따라서 홍자성의 개인 행적과 『채근담』 주제의 관련성은 조심스럽

18) 洪自誠 著,『菜根譚』, 위의 책. "天薄我以福, 吾厚吾德以迓之; 天勞我以形, 吾逸吾心以補之; 天阨我以遇, 吾亨吾道以通之. 天且奈我何哉!"
19) 于孔兼, 「題詞」, 앞의 글. "其所自警自力者, 又可思矣."

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晩明 淸言은 대체로 '淸'을 이상으로 삼아 부귀영화의 허망함을 드러내고, 물욕과 쾌락을 부정하며,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사는 삶을 추구한다.[20] 현세의 세속적 생활을 넘어서 전원의 탈속적 생활을 희구하는 처세의 지혜를 선호한다. 사회생활과 名利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부패한 정치계와 부를 다투는, 생존경쟁 치열한 시장 사회를 혐오하였다.[21] 그와 같은 청언의 기본적 속성에서 『채근담』은 만명 시대의 일반적인 청언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채근담』의 주제는 세속적 현세의 실태를 폭로하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처세의 지혜를 제시한다. 독특한 처세관과 인생관을 제시하여 상투적이고 번한 처세훈을 가르치는 인생론과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屠隆(1543-1605)의 『娑羅館淸言』과 『채근담』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각각의 청언집에서 인용한다.

> 방외에서 우연히 승려나 도사가 지나가면
> 신발을 거꾸로 신고 화급히 대사립을 열어 맞아들인다.
> 좌중에서 혹여라도 시장이나 조정을 말하면
> 두 귀를 가리고 바로 솔바람에게 날려 보내도록 한다.(『娑羅館淸言』 113칙)
> 方外偶過僧道, 倒雙屣, 急開竹戶迎來; 座中倘及市朝, 掩兩耳, 輒敕松風吹去.

> 세상을 초탈하는 길은
> 세상을 헤쳐가는 가운데 있으니
> 굳이 인연을 끊고 세상에서 도망갈 일은 아니다.
> 마음속에서 일을 끝내는 공부는
>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있으니
> 굳이 욕심을 끊고 마음을 불꺼진 재처럼 식힐 일은 아니다.[22](『채근담』 후집 41칙)

---

20)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도서관 소장 『雅賞齋遵生八牋』 증보본 목록에서는 『채근담』을 "增附菜根淸譚牋"이라 하여 『채근담』을 『菜根淸譚』이라 하였다. 淸자를 추가한 것은 『채근담』의 성격을 더 명료하게 하였다. 안대회, 위의 글.

21) 曹淑娟, 『晩明性靈小品硏究』, 臺灣 文津出版社, 1988, 207-220면.

22)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채근담』의 원문과 번역문은 2022년 봄에 민음사에서 출간할 예정인 교감본 역서에 따른다.

出世之道, 即在涉世中, 不必絶人以逃世; 了心之功, 即在盡心內, 不必絶欲以灰心.

도륭은 승려나 도사는 환영하지만 시장이나 조정에 관한 말은 아예 듣지 않겠다며 현실세계와 담을 쌓으려는 의지를 보인다. 반면에 홍자성은 세상을 초탈하는 행위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세상이 싫다고 모든 인연을 끊고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선택과 사악하고 더럽다고 모든 세속적 욕망을 끊고 사는 선택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도륭의 『娑羅館淸言』과 『續娑羅館淸言』에서는 현실초탈의 태도가 우세하다. 40칙에서는 權貴와 가까이하지 않고, 조정과 문서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名利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하고 있다. 현실사회를 긍정하거나 세상에 나가 명예와 권력, 부를 얻겠다는 의지가 매우 약하다.[23] 이런 出世의 태도는 도륭만이 아니라 청언 작가에게 공통된다.

홍자성도 出世의 태도를 분명히 보인다. 다만 위의 글에 나타나듯이 出世는 涉世하면서 해야지 세상 인연을 다 끊고서 逃世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 서 있다. 어쨌든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세상을 초탈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홍자성은 영욕과 득실, 시시비비와 이해관계로 뒤엉킨 현실이 세상의 본모습이고, 그런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는 생활이 인생길의 본질이라고 보았다.(후집 42칙) 이는 다른 청언 작가와 홍자성의 뚜렷한 변별점이다.

그와 같은 태도는 『채근담』의 구도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초간본은 前集과 後集으로 나뉘어 전집 222칙, 후집 141칙으로 전체 363칙의 청언이 수록돼 있다. 교감을 거쳐 확정한 수량이다. 전집과 후집을 나눈 특별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집에는 상대적으로 處世와 涉世의 청언이 많고, 후집에는 상대적으로 出世, 곧 은퇴 생활의 청언이 많은 편이다. 전집이 분량도 훨씬 많아서 『채근담』은 處世와 涉世에 큰 비중을 둔 청언집이라 할수 있다.

전집에는 현실 세계에서 남과 부대끼며 겪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후집에는 은퇴하여 한가롭게 지내는 고상한 문제를 많이 다룬다. 전집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려 애쓰는 청장년 인생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집은 세상에

23) 曹淑娟, 위의 책.

서 물러나 인생을 관조하는 노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에 전집과 후집에서 전형적 사례를 각각 인용한다.

> 쇠붙이를 백 번이나 단련하듯 갈고 닦아야 하니
> 급히 배운 지식은 깊이 길러낸 소양이라 할 수 없다.
> 천 鈞 나가는 쇠뇌를 다루듯 시행에 옮겨야 하니
> 가볍게 시작하는 일은 굉장한 공을 세우지 못한다.(전집 189칙)
> **磨礪, 當如百煉之金, 急就者, 非邃養; 施爲, 宜似千鈞之弩, 輕發者, 無宏功.**

> 차갑게 식은 처지가 되어 뜨거웠던 때를 살펴보라!
> 그런 뒤에야 뜨거웠던 시절 들떠서 뛰어다닌 짓이 무익했음을 알게 된다.
> 쓸데없이 바쁘다가 한가한 처지가 되어 보라!
> 그런 뒤에야 한가로이 지내는 맛이 가장 좋은 줄을 깨닫게 된다. (후집 16칙)
> **從冷視熱, 然後知熱處之奔馳無益; 從冗入閒, 然後覺閒中之滋味最長.**

전집 189칙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사람에게 주는 경구로 받아들일 만하다.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큰일을 벌이려는 사람에게 줄 법한 말이다. 급히 배운 얄팍한 지식으로는 큰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오랫동안 갈고 닦아야 한다고 하였고, 가볍게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되니 숙고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시작하라고 충고하였다.[24] 여기서 일은 관료 생활이나 상업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일을 두루 가리킨다.

반면에 후집 16칙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온갖 일로 바쁜 인생을 무의미한 취지로 말하였다. 열정이 식고 한가한 처지로 성공하려고 바쁘게 일할 때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두 개의 청언에서는 한창 사업을 하려는 사람과 사업에서 물러난 사람의 시각이 상반된다. 서로 다른 시각은 전집과 후집의 개략적인 특징에 잘 부합한다.

『채근담』은 만명 시기에 나온 수백 종에 이르는 청언집을 대표하는데

---

24) 이 淸言은 邵康節이 지은 「何事吟」(『伊川擊壤集』 권5)의 "천 균 나가는 쇠뇌를 다루듯 시행에 옮겨야 하고, 쇠붙이를 백 번이나 단련하듯 갈고 닦아야 하네.(施爲欲似千鈞弩, 磨礪當如百鍊金)"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당부의 말로 보인다.

161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간행되어 청언집 초기작에 해당한다. 『채근담』보다 10년 정도 앞서 나온 청언집 명작 가운데 3종이 대표작이다. 徐學謨(1522-1593)의 『歸有園麈談』, 屠隆(1543~1605)의 『娑羅館清言』, 李鼎의 『偶譚』이다. 도륭은 만명 청언을 유행시킨 장본인으로 청언의 문체와 사유의 틀을 제시하였다.[25] 3종의 청언집은 1606년에 陳繼儒가 편찬하고 尚白齋에서 간행한 총서 『陳眉公訂正祕笈』에 수록돼 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청언집 공통의 주제를 주로 말함으로써 『채근담』과는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 徐學謨의 『歸有園麈談』에서는 인정세태를 절묘하게 포착하여 사회현실과 炎涼世態의 진실을 드러냈으나 대체로 관직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부분은 『채근담』에 영향을 주어 홍자성은 그중 청언 3칙을 수용하였다.[26]

> 음침하여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로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라.
> 으스대며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모름지기 입을 다물어라.(전집 123칙)
> 遇沈沈不語之士, 且莫輸心; 見悻悻自好之人, 應須防口.

세상물정을 절묘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경계할 것을 당부한 글로 서학모의 『귀유원주담』에 나오는 청언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채근담』의 주제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청언 가운데 하나이다. 『채근담』은 홍자성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글로 구성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청언 창작집이지만 이처럼 주제의식에 부합하는 선배의 청언을 일부 수용하기도 하였다.

『채근담』, 특히 전집에서는 이렇게 험난한 세상물정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처세의 지혜를 다방면으로 제시하였다. 소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난관을 헤치고 자기의 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강구한 내용의 비중이 크다. 『채근담』의 그와 같은 주제는 일반 청언집의 지향과는 적잖이 차이가 난다. 일반 독자를 상대로 하여

25) 鄭幸雅, 『晚明清言研究』, 臺灣 文津出版社, 2013, 179-192면.
26) 전집 123칙과 전집 136칙, 후집 130칙이다. 이중 후자는 『歸有園麈談』을 인용하여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용하였다. 3종의 청언집은 『陳眉公訂正祕笈』(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도서관 소장 명간본)에 수록된 목판본을 이용할 수 있다.

청아한 말을 하는 청언집의 성격상 상인 사회에서의 경험과 바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다른 청언집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에는 상인의 윤리와 경영법의 관점에서 분석해볼 요소가 있다. 여기에는 휘주 상인 사회에서 성장한 저자의 배경과 학맥, 인맥, 지역색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4. 『채근담』 前集의 處世와 涉世

『채근담』에는 앞장에서 인용한 후집 41칙의 예처럼, 涉世와 出世라는 책의 근간을 이루는 말이 자주 나온다. 섭세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고, 출세는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전집은 섭세에, 후집은 출세에 큰 비중을 두었다. 청언집이 대개 출세에 비중을 둔 데 반해 『채근담』은 섭세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채근담』은 세상의 온갖 부조리, 인정세태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때로는 비정한 현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말세라는 의식을 표출하기도 한다.[27]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한 전집에서는 험난한 세상을 헤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자성은 휘주의 흡현과 강소성 회안현, 남경 등 번화한 도회지에서 생활한 도회인이었다. 청언 작가는 도회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자연에서 살기를 꿈꾸었다. 반면 홍자성은 도회지 생활을 예찬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도회지를 싫어하여 자연으로 도피하며 은둔하는 삶을 추천하지도 않았다. 청언 작가에게 흔히 보이는 은둔 취향과 뚜렷하게 차별된다. 전국적 대도회지와 외국을 무대로 활동한 휘주 상인 사회에서 성장한 배경이 그의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홍자성은 현실 세계를 험난하고 결함 많은 모순된 삶의 현장으로 보았다. 세상 자체가 혼돈과 생존경쟁의 현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삶의 현장과 환경에서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비뚤어지고 험악한 인정과 힘겹고 험난한 세상길에서 견딘다는 한 마디를 얻어 꽉 붙잡고 지나가야 한

27) 吳承學, 『晚明小品研究』, 浙江古籍出版社, 1998, 272-291면.

다.'(전집 180칙)라며 '견딘다는 한 마디는 의미가 지극히 깊다.'라고 하였다. 『채근담』이 좌절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세상을 견디며 살아온 자신의 경험에 뿌리를 둔 책임을 암시한다.

홍자성은 또 '속세를 끊고 고결하기를 구하는 자는 고결한 사람이 아니라 괴벽한 사람이다.'(전집 167칙)라고 말해 현실을 싫어하고 부정한 결과 자연으로 도망하고 은둔하는 晩明山人型 지식인의 태도를 거부하였다. 그 점에서 상인 사회 출신답고, 儒家에 뿌리를 둔 사람답다. 그렇듯이 '먼지 구덩이 세상에 발길을 들여놓기'(후집 105칙)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부조리와 타락한 세상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세상에는 욕망을 자극하는 세속적 유혹과 권력, 이권이 널려있는데 그 의의를 부정하거나 아예 눈을 감아도 소용이 없다. 세상이 그런 곳임을 인정하되 '욕심낼 물건을 봐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후집 105칙)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권력과 물질의 욕망에 빠지거나 쾌락에 몸을 내맡기지 않고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견딜지언정 만고에 처량할 길을 선택하지는 않는다.'(전집 1칙) 도덕적 신념을 지키며 험악한 인정과 험난한 세태를 뚫고 살아가자고 다짐한다. 홍자성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좌절한 염세주의자를 옹호하지도 않고,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서 도망하거나 아예 현실과 담쌓고 사는 결벽주의자를 옹호하지도 않는다. 주어진 현실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자이다.

이렇게 현실에서 견디며 살자면 처세술이 필요한데 그때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 것인가? 남들처럼 추하고 사악하게 살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 권세와 이익, 사치와 화려함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다.
> 하지만 가까이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깨끗하다.
> 잔재주와 간계, 권모와 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하다.
> 하지만 알면서도 써먹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고상하다.(전집 4칙)
> 勢利紛華, 不近者爲潔, 近之而不染者尤潔; 智械機巧, 不知者爲高, 知之而不用者爲尤高.

추한 현실에서 함께 뒹굴기는 해도 오염되거나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세파를 겪기는 하지만 찌들지는 않고, 처세술에 능란하지만 써먹지는 않는다. 그의 처세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유가에서는 권세와 이익, 권모술수와 같은 행위를 접근하는 것조차 더럽게 여겨서 아예 그렇게 행동하는 이를 소인배로 낙인찍고 관계를 단절하려 들었다. 하지만 홍자성은 그런 행위를 하는 소인배들과 공존하되 물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를 결벽적 처신보다 더 높은 단계로 평가하였다. 홍자성은 현실에 적응하고 타협하려 한 현실주의자로서 정통 유가와는 달리 노회하고 원숙한 처세술을 제안하였다.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즐기려는 행위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권모술수를 부리는 능력을 소유할 필요도 있음을 긍정하였다. 그의 처세술에는 정통 유가의 正大한 처세와는 다른 점이 많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 매가 서 있는 모습은 잠이 든 듯하고
> 범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은 병이 든 듯하니
> 이야말로 저들이 사람을 나꿔채고 사람을 무는 솜씨를 보일 순간이다.
> 따라서 군자는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고
>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하니
> 그래야 두 어깨로 크고 무거운 짐을 질 역량을 가진다.(전집 198칙)
> 鷹立如睡, 虎行似病, 正是他攫人噬人手段處. 故君子要聰明不露, 才華不逞, 纔有肩鴻任鉅的力量.

맹금과 맹수의 사냥법을 통하여 인간 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강자가 약자를 휘어잡는 방법이 유가의 정정당당한 처신과는 거리가 있고, 그런 방법을 써서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잡으려 하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 하지만 이런 처세술은 전쟁이나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채근담』에는 이런 유의 처세술을 다수 제안하고 있다.

전집에는 이처럼 '비뚤어지고 험악한 인정과 힘겹고 험난한 세상길'에서 맞닥뜨리는 조정과 시장, 사업과 대인관계, 가족과 친지, 군자와 소인, 원수와 은인 등 갖가지 인간관계가 두루 다뤄진다. 그 속에서 겪게 되는 배신과

시기, 좌절, 갈등, 출세, 실패, 위기, 치욕, 명예, 선행, 악행, 오만, 흥분, 실의, 우울, 흥분, 욕망, 가난, 타락 등 숱한 감정의 동요와 혼란의 상황을 들고 대증요법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자신에게는 기쁨과 희망, 휴식을 강조하고, 남에게는 배려와 관용, 용서를 강조하였다.

홍자성의 처세관에서 핵심은 시대환경의 추이와 영고성쇠의 변화, 인심의 변덕에 대처하는 적극성에 있다. 세상 자체를 혼돈과 생존경쟁의 현장으로 본 그는 세상이 항시 변하고 인간은 변덕이 죽끓듯하여 날씨가 시시각각 바뀌는 것과 같다고 인식하였다. 세상의 변화와 인간의 변심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고, 이는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우주 자체의 성질에서 나온다고 이해하였다. 우주는 늘 변화무쌍한데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氣像이다. '기상의 변화는 잠시도 쉬거나 멈춤이 없다.' 그러니 '군자는 아무리 한가할 때라도 급박하여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전집 8칙) '사람 마음의 본체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전집 125칙)고 하였다.

기상과 닮은 인간사를 보면, 오늘의 부자가 내일에는 거지가 되고, 오늘에는 번창하던 사업이 내일에는 파산을 겪는다. 오늘 비천한 사람이 내일에는 고관이 되고, 오늘의 은인이 내일에는 원수가 된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에는 슬픔이, 오늘의 실의가 내일에는 환희로 바뀐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이 극심한 변화에 사람은 내동댕이쳐 있고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늘 긴장하며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은혜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해코지가 발생한다.
> 따라서 마음이 유쾌할 때라도 서둘러 고개를 돌려야 한다.
> 실패한 뒤에 도리어 성공하는 일이 있다.
> 따라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바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전집 10칙)
> 恩裏由來生害, 故快意時須早回頭; 敗後或反成功, 故拂心處莫便放手

삶과 죽음이 번복하듯 은혜와 해코지도 되풀이된다.[28] 은혜를 주고받는

28) 『陰符經』의 "삶은 죽음의 뿌리이고, 죽음은 삶의 뿌리이다. 은혜는 해코지에서 나오고, 해코지는 은혜에서 나온다[生者死之根, 死者生之根. 恩生於害, 害生於恩.]"라는 글에서 발상을 가져왔다. 홍자성

사이라고 상대를 철석같이 믿었다가 배신당할 수 있으니 사이가 정말 좋을 때 돌아서는 것이 좋다.[29] 반면에 사업에 실패한다고 끝이 아니다. 다시 성공할 수도 있으니 뜻대로 사업이 안 풀려도 바로 손을 털지 말아야 한다.

인생과 사업에는 위기와 역경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한편에는 행운과 기회가 곳곳에서 기다린다. 운명의 장난을 영웅호걸도 피하지 못하나 '군자는 역경이 찾아와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지낼 때도 위태로울 때를 대비할 뿐이니, 하늘인들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전집 69칙)라고 하여 운명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갈 길을 시원하게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채근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처세관과 인생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순환하는 세상과 삶의 험난한 경로에서 내가 내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채근담』 전집에서는 은혜와 해코지, 성공과 실패의 번복과 순환을 강조하면서 성공과 안녕과 부귀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또한 실패와 몰락에 좌절하여 사업에 손을 떼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권력의 부침과 사업의 흥망, 관계의 번복이 무쌍한 당시 휘주 상인 사회에서 견문하고 경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홍자성이 처한 환경으로 볼 때 관계와 상업계의 오랜 경험이 녹아든 잠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중국 상업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휘주 상인의 상인 윤리와 흥망성쇠의 경험이 『채근담』의 처세술에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다. 홍자성의 스승 왕도곤은 당시 휘주 상인이 겪는 실태를 두루 기록해놓았다. 그 가운데 "그 무렵 많은 상인은 망했다가 흥했다가 마치 조숫물이 드나들 듯하였다. 억제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고, 구속받지 않으면 타락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편찬한 『長生詮』에 인용돼 있다.

29) 위 인용문에서 은혜를 거론하였는데 『채근담』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소재의 하나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안건이다. "사업을 일구면서 덕을 심으려 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피고 지는 꽃이다."라고 하여 부를 일궈 남을 도우려 하고, 죽어서라도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중시하였다. 이는 『史記』 「貨殖列傳」의 '君子富好行其德'의 논리와도 관련이 깊고, 윤리를 강조하는 휘주 상인의 상업윤리와도 연결된다.

망하였다."[30]라고 말해 사업가들이 겪는 흥망과 부침의 형편을 말하였다.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채근담』이 유난히 가혹한 현실 환경, 대인관계, 인정세태를 부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견디고 헤쳐나가는 방법을 중시한 데는 당시 상인의 의식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현대의 경영자가 이 책을 경영의 철학이 담긴 훌륭한 저술로 보는 데는 근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상인 활동의 구체적 영역을 청언집인 『채근담』에서 서술하는 데는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류의 저술에서 구체성을 띤 상업과 사업의 지침과 기술을 담은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자의 삶과 『채근담』의 연계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채근담』 後集의 出世

『채근담』 후집은 전원에서 한가롭고 맑게 사는 생활을 많이 다룬다. 전집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후집은 세상을 벗어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세상을 벗어난다고 하였으나 삶의 터전인 도회지와 인가가 많은 마을을 벗어나 산중으로 도피하는 처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벼슬하고 사업하며 이익을 구하는 행위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둔다는 의미이다.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홍자성은 은둔의 처신을 옹호하지 않는다. 도회지 안에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산수에 묻혀 지내는 삶보다 더 낫다고 보았다. 이 역시 홍자성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홍자성이 후집에서 권유한 처신의 주요한 주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쉬고 싶을 때는 당장 쉬고, 몸의 변화와 죽음을 받아들여라.
둘째, 사물은 사물에 맡겨 간여하지 말고,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
셋째, 세상물정의 정해진 틀에 나를 꿰맞추지 말고, 나의 인생극장에는 내

30) 汪道昆, 『太函集』, 권53(위의 책, 2권), 「處士吳君重墓誌銘」. 1119-1121면.

가 주인이다.

넷째, 헛된 영화와 횡재를 멀리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다섯째, 극단을 피하고 극성한 부귀에 자만하지 말라.

여섯째, 마음에 계교하지 말고 마음의 활동을 멈춰라.

여섯 가지 모두 전집에서 지향했던 '비뚤어지고 험악한 인정과 힘겹고 험난한 세상길'에서 견디며 헤쳐나가던 적극적 도전과 생업의 전선에서 물러나 유유자적하며 평온하게 지내는 방향을 취한다. 후집에는 열정적인 젊은 시절의 긴장에서 벗어나 냉정해진 노년의 느긋한 삶을 추구한다. 전집이 유가의 사유에 가깝다면 후집은 노장이나 선종의 사유에 가깝다.

> 욕심을 멈추면 문득 달이 뜨고 바람이 불어오는 경지가 나타나니
> 굳이 인간 세상을 苦海로 여길 필요가 없다.
> 마음이 멀어지면 수레 먼지와 말발굽 흔적이 저절로 사라지니
> 굳이 산중을 애타게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후집 111칙)
> 機息時, 便有月到風來, 不必苦海人世; 心遠處, 自無車塵馬迹, 何須痼疾丘山.

청언에서 흔히 말하듯이 세상을 괴로움의 바다로 볼 필요가 없고, 그 세상을 피해 산중으로 도피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屠隆의『사라관청언』에서 세상을 고해라고 말한 것과 다르다. 어느 곳에 살든 마음껏 즐길 만한 세상 아님이 없으므로(후집 32칙), '조용하든 시끄럽든 어디에도 상관하지 않는'(후집 33칙) 태도로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였다. 북적대며 살던 본래의 터전을 버리고 왜 생뚱맞게 고고한 척 산수로 도피하느냐는 반문이다. 산수든 도회지든 모두 좋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자신이라면 도회지에서 살겠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자유로운 삶은 사는 장소의 위치가 아니라 마음먹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홍자성은 '얽매이느냐 벗어나느냐는 오로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속에서 일을 끝냈으면 푸줏간도 술집도 어엿한 淨土가 된다.'(후집 89칙)라고 하여 현실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마음이 속

박되지 않으면 도회지의 푸줏간이나 술집에 있어도 절간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반대로 속박돼 있으면 절간도 속세와 같다. 관건은 마음의 해방이요 자유로움이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에 달린 문제로 돌려야 도회지 번잡한 세상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느긋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과거의 열정적이고 긴장되며 쾌락을 추구했던 삶과 과감히 결별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깎아지른 절벽에서 잡았던 손을 놓듯이' '풍악이 한창 무르녹을 때 옷깃을 떨치고 영영 떠나는'(후집 104칙) 결단이 필요하다. 우유부단하게 세상에 미련을 보이는 사람은 결코 속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욕과 득실, 시비와 이해로 뒤엉킨 속된 인생의 실타래를 뚫고 나온 해방감과 기쁨을 후집에서는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지난날 아등바등 살던 인생과 결별하고 새롭게 찾은 自適한 인생의 즐거움이다.

> 영광에도 치욕에도 놀라지 않고
> 꽃이 피고 꽃이 지는 뜰 앞을 한가로이 내다본다.
> 떠남에도 머무름에도 아무 뜻이 없어
> 구름이 걷히고 구름이 펴지는 하늘을 무심히 바라본다.(후집 70칙)
> 寵辱不驚, 閒看庭前花開花落; 去留無意, 漫隨天外雲卷雲舒.

그동안 영광과 치욕이 번복되고, 자리를 지킬지 자리를 뜰지 고뇌와 갈등이 잦은 삶을 살았다. 이제는 달라졌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현실과는 거리를 두고서 냉소하는 심경과 방관하는 태도로 바라보기도 한다. 세상에 눈을 감으니 뜰 앞에서 피고 지는 꽃이 눈에 들어오고, 하늘을 오락가락하는 구름을 여유롭게 볼 수 있다.

그처럼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바쁜 일상에서 휴식하기가 어렵다. 후집에서는 휴식하는 삶을 중시한다.

> 일을 내려놓고 쉬고자 하면 당장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쉬어야 할 시간을 따로 찾으려 하면
자식 혼사까지 마쳤다 해도 남은 할 일이 적지 않고
승려나 도사는 사정이 나으나 그들 마음 역시 일이 끝날 때가 없다.
“지금 쉬고 싶으면 당장 쉬어라!
일이 끝날 때를 기다린들 일이 끝날 때는 없을 테니.”
라고 옛사람이 말했거니와 식견이 탁월하다.(후집 15칙)
人肯當下休, 便當下了. 若要尋個歇處, 則婚嫁雖完, 事亦不少; 僧道雖好, 心亦不了. 前人云: “如今休去便休去, 若覓了時無了時.” 見之卓矣.

일을 마치고 쉬려 한다면 그런 시간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 쉬어야 하겠다고 판단했다면 당장 쉬라고 권한다. 타성이나 의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생 성공 논리에 저당 잡혀서 쉬지 못하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불행에서 과감히 벗어나라고 요구한다.

여기에는 여유를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한가로움을 즐기고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홍자성은 ‘다른 일을 빌려 마음을 달래는 방법[借境調心]’[31]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숲속의 샘과 바위 사이를 거니노라면
때 묻은 마음이 점차로 사라지고
서책과 그림 사이에서 서성대다 보면
저속한 기운이 저도 모르게 수그러든다.
따라서 사람은 사물에 정신이 팔려 본심을 잃지는 말아야 하지만
늘 다른 일을 빌려 마음을 달래야 한다.(후집 45칙)
徜徉於山林泉石之間, 而塵心漸息; 夷猶於詩書圖畫之內, 而俗氣潛消. 故君子雖不玩物喪志, 亦常借境調心.

쉬거나 여유를 찾은 몸과 마음이 무료하거나 아무 할 일이 없다면 또 다른 삶의 문제를 일으킨다. 홍자성은 다른 일을 빌려 마음을 달래는 방법 곧 차경조심(借境調心)을 제안한다. 숲속에서 산책을 즐기고 서화를 감상하고 책을 읽는 취미가 그가 말한 다른 일의 하나이다. 한가롭다고 아무 일도 하지

31) 鄭幸雅, 위의 책, 305-314면.

않는 것은 오히려 본심을 잃고 방종으로 유인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붙일 새로운 일거리를 선택하여 가볍게 즐긴다. 일종의 취미 활동을 권장하였다.

후집에는 마음을 붙일 다양한 일을 소개하여 도회지나 전원에서 유유자적 마음껏 즐기며 사는 삶을 제안하였다. 한가롭게 自適하는 생활의 즐거움은 청언집에서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삶의 자세이다. 반면에 홍자성은 동떨어진 궁벽한 산수를 찾거나 인적과 떨어진 곳에서 고행하듯이 지내는 삶을 선호하지 않았다. 대신 도회지 주민의 일상적 기쁨과 행복을 두둔한다. 상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자의 경험이 청언에 녹아들어 그런 차이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홍자성의 출신지와 스승을 새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菜根譚』의 주제를 새로 검토하였다. 오랫동안 정설처럼 굳어진 泗川省 成都 출신으로 楊愼의 제자라는 설을 수정하여 安徽省 徽州의 歙縣에 본적을 둔 부유한 鹽商 가문 출신이며, 같은 지역 염상 가문 출신의 유명한 문인인 汪道崑의 제자임을 밝혔다. 새롭게 밝힌 사실을 통하여 홍자성이 명청 시대에 가장 큰 상인집단이었던 휘주 상인의 의식을 지닌 지식인이었고, 해당 지역의 정신적 지주였던 왕도곤의 학맥과 인맥, 지역색의 영향권에서 활동하였음을 추적하였다.

청언 문체가 본디 상인문화를 수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채근담』에서 제한적이라도 왕성한 상업문화를 꽃피운 휘주 상인의 경영문화와 지역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어 그들의 경영문화와 인간관계, 리더쉽의 경험이 은밀하게 녹아든 면이 있다고 보았다. 당시의 주요한 청언집과 대비하여 『채근담』에는 현실을 도피하며 은둔하는 청언 일반의 사유가 약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영욕과 득실, 시시비비와 이해관계로 뒤엉킨 현실이 세상의 본모습이고,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헤치고 살아가는 자세를 인생길의 본질로 보는 적극적 처세관을 확인할 수 있다.

『채근담』의 전집과 후집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 처세관을 분석한 다음 홍자성이 가혹한 현실 환경, 대인관계, 인정세태를 부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세상을 견디고 헤쳐나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대 상인의 현실과 의식을 반영한 내용으로 이해하였다.

이 논문에서 밝히고 추론한 내용은 홍자성과 『채근담』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홍자성의 가계에 대하여 새로운 문헌과 왕도곤의 제자로서 관계망을 더 넓게 조사하여 논지를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채근담』의 주제의식과 휘주 상인의 상업문화 사이의 관련성을 더 치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今井宇三郎,『菜根譚』, 日本 岩波文庫, 1975.(2016년 66쇄).
宋應昌 著, 구범진 외 옮김,『명나라의 임진전쟁』1・2권,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安大會,『菜根譚』, 민음사, 2022.(간행예정)
汪道昆 著, 胡益民・余國慶 點校,『太函集』, 黃山書社, 2004.
王同策,『菜根譚注釋』. 浙江古籍出版社, 1996.
中村璋八、石川力山,『菜根譚』, 日本 講談社 學術文庫, 1986.
陳繼儒,『陳眉公訂正祕笈』,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도서관 소장 명간본.
馮夢禎,『快雪堂集』, 1616년 간본.
洪自誠,『仙佛奇踪』, 安徽人民出版社, 2013.
洪自誠,『菜根譚』, 萬曆 刊 初刊本,『續修四庫全書』제1133책, 上海古籍出版社.

신정수,「汪道昆의 상인 전기에 나타난 휘상의 협객적 면모」,『민족문화연구』7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129-155면.
安大會,「한국의『菜根譚』수용 과정과 번역」,『한국문화』95,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229-253면.
臼井佐知子,「중국상인의 경영형태와 상업윤리 : 휘주상인을 중심으로」,『史林』, 수선사학회, 2009, 229-260면.
呂宗力 著, 中村璋八 譯,「菜根譚の作者の本籍と版本の源流についての考察」,『駒澤大學外國語論集』31, 1990 , 195-202면.
吳承學,『晚明小品研究』, 浙江古籍出版社, 1998.
이화승,「明代 汪道昆의『太函集』분석—商人을 대변한 병부시랑—」,『明淸史研究』47, 명청사학회, 2017, 109-145면.
鄭幸雅,『晚明淸言研究』, 臺灣 文津出版社, 2013.
曹淑娟,『晚明性靈小品研究』, 臺灣 文津出版社, 1988.
陳怡安,「晚明文人的名聲的經營—以歙縣謝陛的交遊爲例」,『新北大史學』第19期. 2016, 1-24면.

【Abstract】

The Identity of Hong Zicheng and the Theme of Caigentan
—In Relation to the Huizhou Merchants—

Ahn, Dae-Hoe*

This study newly examined the birthplace and teacher of Hong Zicheng, a writer of aphorisms in the late Ming dynasty, and revisited the theme of Caigentan. This study overturned the long-established theory that Hong Zicheng was from Chengdu, Sichuan Province, and was a student of Yangshen. Instead, this study posited that he was from a family of wealthy salt merchants based in Shexian Country, Huizhou in Anhui Province and that he was a student of Wang Daokun, a well-known writer who was also from a salt merchant family in the same region. This study showed that Hong Zicheng was an intellectual with the consciousness of Huizhou merchants, who comprised the largest merchant group in the late Ming dynasty. This study further found that Hong Zicheng was active in the academic, personal, and regional circles of Wang Daokun, who was an intellectual leader of the region.

By analyzing the first half and latter half volumes of the first edition of Caigentan,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book reflected the business culture and regional atmosphere of the Huizhou merchants, who created a flourishing commercial culture. This paper further interpreted that the merchants' business cult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eadership experience were naturally found in the book. Compared to other books of aphorisms, Caigentan does not strongly display the reasoning for escaping reality and living in seclusion, as is the case for many books of aphorisms. Instead, the book understands reality as being entangled with glory and shame, right and wrong, and personal interests, and its outlook towards life is positive as the book defines the true face of life as the attitude to actively overcome difficulties and live in reality.

* Professor,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

This study concluded that Caigentan unintentionally reflected the reality the merchants faced during the period by emphasizing the harsh rea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ublic sentiment and presenting ways to stay vigilant and endure and survive in the worl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view Hong Zicheng and Caigentan in a whole new light.

Keywords: Hong Zicheng(洪自誠), Caigentan(菜根譚), late Ming dynasty aphorisms, Wang Daokun, Huizhou merchants, salt merchants.

접수일: 2021.09.29. ‖ 심사일: 2021.10.08. ‖ 게재확정일: 2021.11.23.